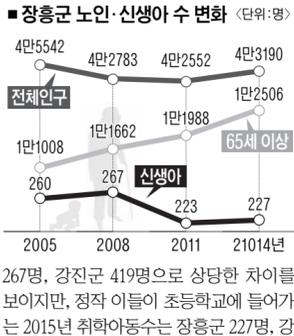


출산장려금 먹튀... 시·군 '인구 늘리기' 失效

지원만 받고 다시 전출
장흥·강진 등 출생아수
취학아동수 현격히 줄어

전반적인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장흥 농·어촌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200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4만 5542명 가운데 24%대인 1만 1008명이었으나, 10년 후인 2014년 말에는 전체인구

4만 3190명중 29%대(1만 2506명)로 늘었다. 장흥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이후 해마다 많게는 300명에서 100명 등 10년 동안 총 1500명 이상 증가했다. 반면 다각적인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수와 취학 아동수는 지난 2005년 말 기준 260명에서 2014년 말 227명으로 10년새 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벌이고 있는 '출산장려 사업' 등 인구늘리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흥군과 강진군의 출생한 신생아 수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08년에 장흥군



진군 24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상당수가 출산장려금 등 지원 받은 후 도시권으로 빠져나가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이 실효를 보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일선 농·어촌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오히려 신생아들의 유출 현상을 불러 일으키는 역기능으로 '생색내기 전시행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전남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나주시(첫째 470만원), 함평군(둘째 1170만원) 완도군(여섯째 1300만원) 등이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대성수산 오재성 사장이 히트펌프 앞에서 김 생산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년에 4번만 채취...친환경 양식 강진만 무산김

전통방식으로 생산 '옛맛 그대로'

설 앞두고 전국서 주문 쇄도

강진만에서 친환경 지주식으로 양식한 무산(無鹽)김이 풍부한 바다 향과 담백한 맛으로 대도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군 신전면과 마량면 어민들은 요즘 지주식 돌김채취로 더욱 분주하다. 김이 생산되는 겨울철이면 1년에 4번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진만의 지주식 양식법은 말뚝을 박은 뒤 김발을 매달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로 하루 8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돼 부유물에 비해 재배기간이 더 길고 채취 횟수는 적지만 맛과 향은 더 뛰어나다. 어민들은 파래나 잡티 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유기산 사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양식하고 있다. 강진만에서 생산되는 무산 김의 90%는 신전면 사초리에 위치한 대성공장(사장 오재성)에서 제품화되고 있다. 바다에서 갓 들어온 원초는 바닷물로

세척하는 보관탱크를 거쳐 이물질 선별→숙성→조합→교반(워셔)→섞음→건조 등 과정을 거쳐 네모난 모양의 돌김으로 상품화된다. 특히 히트펌프는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미세먼지 없이 깨끗하면서도 자연의 맛 그대로를 살린 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진 무산김 1속(100장)당 가격은 4000~7000원으로, 설을 앞두고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08년부터 친환경 김 양식사업을 위해 지주목과 발장, 작업바지선 관리기, 포장재, 저온저장고 부유물에 비해 재배기간이 더 길고 채취 횟수는 적지만 맛과 향은 더 뛰어나다. 어민들은 파래나 잡티 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유기산 사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양식하고 있다. 강진만 지주식 김은 현재까지 81만속이 생산되는 무산 김의 90%를 올리고 있으며, 오는 4월 중순까지 140만속을 생산해 55억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소나무 →편백나무 강진 보은산 조림사업 올해도 7억들어 시행

강진 보은산이 특화된 조림사업을 통해 명품 숲으로 바뀌고 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2014년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국비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했던 보은산 특화림 조성사업이 연차사업으로 2015년에도 국비 7억 원을 확보해 진행된다. 군은 주민들의 건강 산책로 1번지인 보은산의 수목경관 개선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리기다 소나무를 점차적으로 편백나무 등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고 있다. 군은 보은산 특화림 조성사업비를 확보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보은산 남사면에 편백 2만 3000그루, 충훈사에서 헬기장 등 산로 구간에 황칠나무 1705그루를 식재했다. 모란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산책코스인 모란공원 위쪽에도 금목서와 청단풍 각 200그루를 심었다. 군은 올해 보은산 특화림 조성 연차사업으로 보은산 북사면에 황칠나무와 녹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보은산 숲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조림지로 육성해 '향기나고, 소득이 되는 숲'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 표고 설 선물 인기 민족 대명절 설명절을 1주일 앞둔 12일 강진군 강진읍 표고버섯 가공공장에서 출하작업이 한창이다.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건표고버섯은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다. <강진군 제공>

서영암농협 합병 3년만에 전국 최우수농협 됐다

중앙회 업적평가 전국 1위 서영암농협(조합장 이재식)이 지난 2012년 합병 후 새롭게 출범한지 3년 만에 전국 최우수농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영암농협은 "지난 10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2014년 종합업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농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영암농협은 지난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보험사업 부문에서 고루 뛰어난 성과를 거둬 매월 종합업적평가에서도 1위를 연속 차지했다. 신용사업 부문은 카드사업과 e금융, 보

험사업, 채권관리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채권관리 부문은 연체비율 0.83%로 '클린뱅크' 인증서를 수상했다. 보험사업 부문은 상반기 손해보험 부문 1위와 전년대비 보험료 16억원 증가한 58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상호금융 부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우수사무소로 선정됐다. 경제사업 부문은 농산물 가격하락과 경기불황에도 전년대비 31억원 증가한 143억원의 판매사업 실적을 올렸다. 특히 채소수급 안정사업인 견고추 계약재배를 실

시해 1억4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사업 전국 우수사무소로 선정됐다. 소량 농산물 판매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직접 마을을 순회하며 잡곡 14t을 수집해 1억3600만원의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판로확보에 애로를 겪던 조합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서영암농협은 지난해 조합원과 농가의 실익증대를 위해 ▲고구마 무균묘 공급 ▲산물배 출하장려금 지원 ▲호평벼 계약재배 농가 작업비 지원 등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강진 다산수련원 개보수 마무리 재개관

생활관 45실로 늘려...내달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새 단장을 마친 다산 기념관이 오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강진군은 청렴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자 다산 청렴교육장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추진했던 다산수련원 개·보수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다인실 위주의 생활관을 2인실 위주 침대 방으로 리모델링해 31실의 생활관 수를 45실로 확대했다. 또한 군은 오는 3월 구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착공해 제2교육관으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

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윤재 다산기념관장은 "이번 개·보수공사로 교육생에게 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양질의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수련원 생활관과 교육관 시설물을 이용하는 교육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질적 서비스도 함께 향상시켜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수련원은 지난해 공직관 교육 및 다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3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전국 청렴교육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상무 Biz Tow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및 임대료 (3.3㎡당)	관리비 (3.3㎡당)
지상 14층 지하 4층	일반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제과점, 부동산, 금융ATM, 기타	830㎡ (75,000원)	9,000원
2층	사무실	1,544㎡ (25,000원)	
3층	사무실	1,629㎡ (25,000원)	
4층	사무실	1,267㎡ (27,000원)	
5층	사무실	1,400㎡ (25,000원)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25,000원)	
8층	사무실	1,383㎡ (25,000원)	
9층	사무실	1,367㎡ (25,000원)	
10층	사무실	1,342㎡ (25,000원)	
11층	사무실	1,307㎡ (25,000원)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812㎡ (25,000원)	
지하1층	편의점, 세탁소		

상무비즈타워 (구.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차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062)384-5521

주월동 아파트

▶한양아파트 1층/28평/방3개

정남향 / 학군최상 / 신혼부부적합
내부 리모델링 즉시 입주

- ◆ 매매 1억2500만원
- ◆ 전세 1억500만원
- ◆ 임대 3000만원/45만원 (5000만원/30만원)

월산동 빌라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전파크

4층 / 20평 / 정남향 / 신축 내부깨끗
방2 / 신혼부부적합 / 즉시입주

- ◆ 매매 9500만원
- ◆ 임대 1000만원/43만원 (3000만원/30)

상가 임대

▶서구 차평동 중흥 스카이31
1층 / 31평
800세대 / 시청입구
우측 GS편의점 입점
즉시 임점가능 / 상권 최상
권리금 없음(약국, 미용실, 옷가게 적합)

- ◆ 임대 5000만원 / 350만원

땅 매매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 900평
생산농지 / 나무식재 가능
투자가치 좋음

- ◆ 용자 2억4000만원
- ◆ 매가 4억5000만원

010-8676-1900